

『삼국유사』 신주편 연구

박인희*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불교에서 신주, 불법 |
| II. 신주편 세 이야기의 이해 | V. 결론 |
| III. 타편목 이야기들과 비교 | |

개 요

『삼국유사』는 사학, 문학, 불교학에서 다각도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신주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고의 목적은 신주편이 무엇을 다루고 있으며, 전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밝히려는 것이다.

『삼국유사』 신주편에는 세 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세 편의 이야기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세 이야기는 1) 승려가 주인공이며, 2) 타인의 요청으로, 3) 타인의 어려움을, 4) 불법으로 해결한 이야기라는 점이다. 신주편 세 이야기를 『삼국유사』 다른 편목의 이야기들과 비교했을 때 어려움을 불법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신주편 세 이야기에는 불법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불법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법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불법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며, 불법은 대가를 지불하고 그 효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영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이를 통해 볼 때 『삼국유사』 신주편에서 다루려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이 지닌 영험함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세 편밖에 실리지 않은 것은 불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주제어 : 신주, 삼국유사, 불법, 밀본최사, 혜통항룡, 명랑신인

I. 서론

『삼국유사』와 관련한 연구 결과물들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본고의 대상인 『삼국유사』 신주(神呪)편과 관련한 논의는 적은 편이다. 신주편은 『삼국유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밀교(密敎)와 관련하여 다루어졌다. 신주편이 다른 편목에 비해 비교적 덜 다루어진 것은 ‘밀본최사(密本摧邪)’, ‘혜통항룡(惠通降龍)’, ‘명랑신인(明朗神印)’ 세 이야기만으로 구성되어 다른 편목에 비해 이야기의 수가 적는데¹⁾ 비해, 밀교승이 주문을 통해 신통력을 발휘하는 이야기라는 뚜렷한 특징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신주편을 “密敎關係의 神異僧”²⁾들의 이야기라고 보기도 하였다.

『삼국유사』의 다른 편목들과 신주편을 비교하면서 신주편이 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되기도 했다. 윤주필은 감통편을 논하면서 신주

1) 기이 59조목, 홍법 7조목, 탑상 30조목, 의해 14조목, 감통 10조목, 피은 10조목, 효선 5조목이다. 기이편, 홍법편, 탑상편의 조목 수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기이편을 60조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홍법편을 6조목, 탑상편을 31조목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논란과 상관없이 신주편은 3조목으로 다른 편목에 비해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2) 金煥泰, 「三國遺事의 體裁와 그 性格」, 『論文集』 13, 東國大學校, 1974, 17쪽.

편에 대해서는 “중생의 일상적인 고난을 해결해 주려는 신라 신인종(神印宗)과 고승들의 종교 정신”³⁾을 보여준다고 하였고, 이의태는 “불법에 대한 신앙과 그에 따른 불력의 현현(영험)문제를 다루고 있다”⁴⁾라고 했다. 이도흠은 “신주계통의 승려 행적을 통해 신비적 신이를 드러내고자 함이 이 서사의 목적”⁵⁾이라고 했으며, 김두진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해진 정통과 밀교인 神印宗을 부각하려는 의도”⁶⁾라고 하였다. 한편 이연숙은 『삼국유사』 편찬의도와 관련하여 신주편의 의의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 “고려말기의 원의 복속기에 그러한 외세를 물리칠 수 있는 실천적 호국원리로써 밀교를 제시하였던 것”⁷⁾이라 하였다. 최근 정병삼은 일연이 “교학이 아닌 밀교만을 신라 불교의 하나의 중요한 줄기로 파악하고 편목을 구성한 것”⁸⁾이라 하였다.

그간의 논의를 통해 신주편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어졌다. 하지만 『삼국유사』 속에서 신주편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편목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 본고는 신주편 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을 찾아 이것이 다른 편목의 이야기들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편목의 이야기들과 구별되는 점을 통해 신주편

-
- 3) 尹柱彌, 「《三國遺事》의 체제와 주제 - <感通>편의 체제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韓國學論集』 15, 漢陽大 韓國學研究所, 1989, 154쪽.
 - 4) 이의태, 「설화로 본 삼국유사의 체제와 주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0, 86쪽.
 - 5) 이도흠, 「《三國遺事》의 구조 분석과 의미 해석」, 『韓國學論集』 26, 漢陽大 韓國學研究所, 1995, 440쪽.
 - 6) 金杜珍, 「三國遺事の 體制와 내용」, 『한국학논총』 23,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00, 23쪽.
 - 7) 李妍淑, 「一然의 『三國遺事』 편찬 의도에 관한 一考察 - 神呪篇을 중심으로」, 『東義語文論集』 8, 동의대 국어국문학과, 1995, 135~153쪽.
 - 8) 정병삼, 「『삼국유사』 神呪편과 感通편의 이해」,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2, 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2011, 5쪽.

은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신주편을 통해 전하려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삼국유사』 신주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 신주편 세 이야기의 이해

신주편에는 밀본, 혜통, 명랑 세 명의 밀교승을 중심인물로 내세운 세 이야기가 실려 있다. 세 이야기는 중심인물이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내용상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세 명이 극복한 어려움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은 아니었다. 밀본과 혜통은 병이 든 사람을 치료해 주며, 명랑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낸다. 중심인물이 극복한 어려움에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밀본은 선덕여왕의 병을 고쳐준다. 선덕여왕은 병이 들어 오랫동안 낫지 않았는데 신하들의 청으로 밀본을 불러 치료하도록 하였다. 밀본이 왕의 거처 밖에서 『약사경』을 읽고 나자 밀본의 육환장이 침실 안으로 날아 들어가 늪은 여우 한 마리를 찢어 내치니⁹⁾ 여왕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또 밀본은 승상 김양도가 어렸을 때 걸렸던 병도 고쳐주었다. 김양도의 병은 밀본이 도착하여 경문을 펴기도 전에 나아서 밀본이 고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밀본으로 말미암아 병이 나왔으므로 고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밀본최사’조에는 김유신과 교분이 두터운 늪은 거사¹⁰⁾ 이야기도 실려 전한다. 늪은 거사는 신통력을 자랑하던 사람을 손가락 하나로 제압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이어

9) ‘밀본최사’조에는 밀본의 육환장이 방으로 날아 들어가 늪은 여우 한 마리와 전부터 여왕을 치료하던 홍륜사 승려 법척까지 찢어 내쳤다고 하였다.

10) 거사는 문맥상으로 볼 때 밀본으로 추정된다.

서 거사와 관련한 찬시로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혜통은 당 나라 유학 중에 삼장의 천거로 당 나라 공주의 병을 치료하게 된다. 혜통은 주문을 외워 공을 신병(神兵)으로 바꾸어 병을 쫓으니 홀연 교룡이 나와 도망가고 공주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또 혜통은 신라에 돌아온 후 왕의 부름을 받아 왕녀의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신문왕에게 등창이 나자 왕의 부름을 받아 주문을 외워 병을 치료하기도 했다. ‘혜통항룡’조에는 혜통이 승려가 된 사연과 당 나라에서 쫓아낸 교룡이 신라에서 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물리친 사연, 자신을 잡으러 오는 병사들을 신술(神術)로 물리친 사연 등도 실려 있다.

명량은 당 나라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 문무왕의 청으로 비법을 써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신인종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명량신인’조에는 명량이 당 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던 중 용의 요청으로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한 사연과 명량의 가게에 대한 소개, 고려 태조가 나라를 세울 때 해적이 침범했는데 명량 계통의 승려들을 초칭해 물리쳤다는 사연, 신인종에 귀의한 승려에 대한 사연 등이 실려 있다.

일본과 혜통의 경우 타인의 질병을 고쳐주었고, 명량은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구해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과 혜통은 하나 이상의 사례를 다루었지만 명량의 경우는 하나의 사례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차이는 있다. 하지만 세 이야기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닌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게다가 하나의 사례만을 다룬 명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일본과 혜통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주목할 점은 일본, 혜통, 명량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명량은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구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나서지는 않았다. 문무왕의 요청이 있었기에 명량은 비법을 사용해서 전쟁을 막았다. 이런 태도는 일본이나 혜통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밀본이 선덕여왕의 병을 고칠 때,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여왕이 밀본을 청했기에 밀본은 여왕의 병을 고쳐 주었다. 혜통도 당나라 공주의 병을 고칠 때, 삼장이 자기 대신 혜통을 천거했기에 혜통이 공주의 병을 고쳐 주었다. 왕녀의 병이나 신문왕의 등창도 왕의 요청이 있었기에 혜통이 나섰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이 극복한 어려움은 백성이라면 나서서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왕의 질병이나 전쟁은 국가를 위태롭게 하므로¹¹⁾ 백성이라면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나서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들은 요청을 받고서야 나섰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이들이 나서지 않았던 것은 분명 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밀본, 혜통, 명랑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어려움과 상관없는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병을 치료하려면 의술로써 해야 하며, 전쟁에 이기려면 전술로써 해야 한다. 하지만 병을 치료한 밀본이나 혜통은 의술이 아니라 『약사경』을 읽거나, 주문을 외워서 병을 치료했다. 당나라의 군사를 물리친 명랑도 전술이 아니라 비법을 써서 빌어서 당나라 군사를 물리쳤다. 이처럼 이들은 어려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독경(讀經), 주(呪), 비법(秘法)이었다. 밀본은 『약사경』을 읽었고, 혜통은 주문을 외웠으며, 명랑은 비법을 사용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밀본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약사경』을 읽는 것이었다. 혜통과 명랑의 경우는 분명하지 않은데, 명랑의 경우 당나라

11) 왕이 병이 들거나 외적의 침입으로 전쟁이 나면 국권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신주편 세 이야기에 등장하는 선덕여왕, 문무왕, 신문왕은 삼국 통일이라는 대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왕들이다. 따라서 왕의 질병이나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군사를 물리친 사실이 『삼국유사』 기이편 ‘문무왕법민’조에도 실려 있어 참고할 만하다. ‘문무왕법민’조에 따르면 명량은 문두루(文豆婁)법을 사용해 당 나라 군사를 물리쳤다고 한다. 문두루는 ‘귀신의 이름을 적어 놓은 나무’를 칭하는 것으로 『관정경』 권7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에 소개되었다. 이에 따르면 부처를 따르는 사배제자(四輩弟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오방신의 이름과 그 권속들을 원목(員木) 위에 베낌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문두루법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두루를 만들기 위한 나무의 종류와 크기, 문두루를 만들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문두루가 중국말로 ‘신인(神印)’이라고 한다는 것¹²⁾이 언급되어 있다. 이를 볼 때 문두루법은 오방신의 이름을 나무에 적어 한 뜻으로 마음을 다하여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두루를 수지(受持)하는 것이 주설(呪說)을 한 장 읊는 것과 같다¹³⁾고 한다. 여기서 한 장은 관정장구(灌頂章句)로서 『관정경』의 각 편에 존재하는 다라니이다.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에는 사천왕과 관련된 49장구가 실려 있다. 부처는 사배제자들이 재앙으로 인해 위태로운 날 이 장구를 한 호흡으로 부르되

12) 『灌頂經』 권7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 “此五方之神各有眷屬 一神王者 有七萬鬼神 相隨逐也 五方各有七萬鬼神 七五三十五萬諸鬼神 悉來左右 扶佐病者 令免危厄 過度諸難 此鬼神王爲人作護 令諸邪惡不得妄行 佛告天帝釋 是爲五方神王名字 若後末世 四輩弟子危厄之日 取上五方神王名字及其眷屬 寫著員木之上 名爲文頭婁法 其義如是, 汝宣行之天帝釋言 員木文頭婁縱廣幾許 佛言 縱廣七七分 天帝釋言 何木最勝 佛言 金銀珍寶最爲上者 次梅檀木種種雜香 以此爲文頭婁形 若有疾病危難 恐怖邪鬼 往來中傷憊人者 當如前法 存思三想及五方之神形色相類 使一一分明如對目前 如人照鏡 表裏盡見 如此成就 無餘分散 專心一意 病者除愈 恐者安隱 邪鬼惡神無不辟除 胡言文頭婁者 卽言神印也”. (원문은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 ‘www.sutra.re.kr’ 경전검색에서 내려받았으며, 이하 원문은 이에 의하였음을 밝힌다.)

13) 『灌頂經』 권7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 “若持此印者 誦一章以爲呪說”.

한 장구를 49번 부르기를 49장구까지 모두 하면, 이 장구의 공덕으로 능히 모든 마귀가 사라지고 길하고 상서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¹⁴⁾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문두루법이라는 것은 단지 귀신의 이름을 적은 나무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문두루법은 문두루를 만들고, 또 그에 맞는 장구를 외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명랑이 비법을 써서 당 나라 군사를 물리쳤다는 것은 문두루를 만들고 『불설관정복마봉인대신주경』을 독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혜통의 경우 주(呪)를 외웠다고만 기록되었다. 혜통이 밀교승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서 주는 다라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라니는 ‘지혜와 삼매를 성취시켜 주는 힘을 지니고 있는 비밀스런 진실어’¹⁵⁾를 말한다. 밀교에서는 다라니의 글자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의의와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라니를 암송하는 것으로 병을 퇴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혜통이 신문왕의 등창을 치료할 때나 당 나라 공주의 병을 치료할 때 주를 외웠다는 것은 다라니를 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혜통이 외운 다라니가 스스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소의경전에 따른 것이냐는 점이다. 다라니는 본래 부처나 보살의 깨달음이나 서원에 의거한 것¹⁶⁾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제자인 혜통이 다라니를 스스로 만들어 외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혜통항룡’조에는 혜통이 당 나라에 가서 무외삼장¹⁷⁾에게

14) 『灌頂經』 권7 「佛說灌頂伏魔封印大神呪經」, “若四輩弟子危厄之日, 若欲說此無相章句, 當以一氣, 存呼章句, 憶念莫忘, 至四十九喚一章句. 如是次第四十九章句, 皆亦如是, 此大章印無相功德, 能消衆魔, 令獲吉祥”.

15) 고려대장경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www.sutra.re.kr)의 지식베이스(용어사전) 참조.

16) 고려대장경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17) 『삼국유사』에는 혜통이 무외삼장의 제자라고 하였다. 그런데 무외삼장을 누구인지가 문제이다. 무외삼장을 善無畏로 보면 혜통이 당 나라에 갔을 때는 선무외가 중국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이다. 선무외는 당 나라 현종 716년에 장안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혜통은 665년에 신라로 돌

가르침을 받았는데 삼장이 혜통을 거두는 과정에서 혜통의 정수리를 신주로 고쳐주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혜통이 외웠던 다라니는 혜통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삼장으로부터 배운 것일 가능성이 크다. 삼장 역시 다라니를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 부처나 보살의 깨달음이나 서원에 의거했을 것이므로 혜통이 외웠던 다라니는 소의경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혜통이 밀교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혜통은 밀교의 기본 경전인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일명 『대일경』)과 『금강정일체여래진실섭대승현증대교왕경(金剛頂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大教王經)』(일명 『금강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았을 수 있다. 하지만 혜통이 당 나라에서 신라로 돌아오기 전에 두 경전을 접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일경』은 선무외가 725년 번역한 것으로 알려지며, 『금강정경』은 불공이 753년에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다.¹⁸⁾ 혜통은 665년에 귀국했으므로 신문왕(재위 681~692)의 등창을 치료할 때나 당 나라 공주를 치료했던 고종(재위 628~683) 때에 두 경전을 접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혜통이 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전은 백고좌에서 주로 설해지던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佛說仁王般若波羅密經)』(일명 『인왕경』)과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일명 『금강명경』)을 들 수 있다. 두 경전은 혜통이 태어나기 전에 중국에서 번역¹⁹⁾되었

아왔다고 ‘혜통항룡’조에 기록되었다. 이런 점으로 인해 혜통이 선무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도 하며, 무외삼장이 선무외가 아닌 다른 인물이라고도 하며, 혜통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공적을 스승인 혜통에게 돌린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정룡, 『『三國遺事』 神呪第六 惠通降龍條와 新羅密教』, 『회당학보』 7, 회당학회, 2007, 209~217쪽 참조.

18) 朴泰華, 「韓國佛敎의 密敎經傳 傳來攷」, 『韓國佛敎學』 1, 韓國佛敎學會, 1975, 53~54쪽.

19) 朴泰華, 위의 논문, 55~57쪽.

고, 백고좌에서 설해지던 것이었으므로 혜통이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금광명경』의 ‘사천왕품(四天王品)’에서 부처는 사천왕에게 4부대중들이 이 경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면 부지런히 보호하여 좋지 못한 것은 없애주고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²⁰⁾고 당부하고 있으며, ‘제병품(除病品)’에는 유수장자(流水長子)가 아버지 지수(持水)로부터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전수받아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자 이 말을 듣고서 병이 나왔다²¹⁾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볼 때 혜통이 소의경전으로 삼았던 것은 『금광명경』일 가능성이 있다. 홍윤식도 『금광명경』이 설해지는 호국법회의 밀교적 요소가 명랑·혜통 밀교로 전개되어 진 것²²⁾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의 치료법은 『약사경』을 읽는 것이고, 명랑의 비법은 『관정경』에 따른 것이며, 혜통의 주는 다라니이거나 『금광명경』을 소의경전으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 인물이 어려움을 극복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세 인물 모두 부처의 말씀인 불법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경』, 『관정경』, 다라니나 『금광명경』은 부처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가르침이나 서원을 바탕으로 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세 인물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불법(佛法)의 힘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신주편 세 이야기는 ① 승려인 중심인물이 ② 타인의 요청으로, ③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려움을, ④ 불법(佛法)을 사용하여 극복하여 주었던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일본, 혜통, 명랑 세 인물의 이야기가 신주편으로 묶인 것은 이들이

20) 『金光明經』, 四天王品第六, “若四部衆有能受持讀誦此經 汝等亦應勤心守護 爲除衰惱 施與安樂”.

21) 『金光明經』, 除病品制十五, “時 有百千無量重生 遇極重病 直聞是言 心歡喜 故 種種所患 卽得除差 平復如本氣力充實”.

22) 洪潤植, 「三國遺事와 密教」, 『東國史學』 14, 東國史學會, 1980, 72쪽.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점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는 『삼국유사』 각 편목에서 발견된다. 신주편 세 이야기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다른 편목의 이야기들과 비교를 하면 신주편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지리라 보인다.

Ⅲ. 타편목 이야기들과 비교

『삼국유사』 각 편목에는 어려움에 처했다가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어려움의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신주편 세 이야기와 다른 편목에 실린 이야기를 비교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신주편 세 이야기가 모두 승려들이 중심인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편목에서도 승려가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삼국유사』가 불교와 밀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승려들과 관계된 이야기로 한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신주편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편목인지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이편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에 보면 표훈대덕이 경덕왕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준 내용이 등장한다. 경덕왕은 아들이 없어 왕비를 폐하고 새 왕비를 들일 만큼 후사(後嗣)에 대한 근심이 컸었다. 왕은 표훈대덕에게 명하여 상제에게 청하여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표훈대덕은 상제에게 청해 경덕왕이 아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신주편 세 이야기와 비교할 때 표훈대덕이 경덕왕의 어려움을 완전하게 극복시켜 주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표면적으로는 아들을 얻지 못하다가 얻었으므로 경덕왕의 어려움을 표훈대덕이 극복시켜 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왕이 아들을 원하는 것은 일반인이 아들을 원하는 것과 다른 의미가 있다. 대를 잇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왕이 아들을

원하는 것은 왕권의 계승 때문이다. 그런데 경덕왕의 뒤를 이은 혜공왕은 김양상에게 죽임을 당해 왕위를 빼앗기고 만다. 혜공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이유는 경덕왕이 무리하게 아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표훈대덕은 경덕왕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하게 극복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주편 세 이야기와 기이편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를 비교할 때 결정적인 차이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신주편 세 이야기가 불법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한 반면, 표훈대덕은 경덕왕의 바람을 상제에게 직접 전함으로써 경덕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다. 경덕왕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요청으로,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표훈대덕이 나섰다는 점에서는 신주편과 유사하다. 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할 때 불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홍법편 ‘아도기라(阿道基羅)’조를 보면, 아도와 목호자가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이 등장한다. 미추왕 때 공주가 병이 나서 의원을 구하자 아도가 대궐로 들어가 그 병을 고쳤다고 하며, 또 눌지왕 때 왕녀가 병이 위중하자 목호자를 불러 향을 피우고 축원하였더니 병이 이내 나았다고 한다. 아도나 목호자 모두 타인의 병을 고쳤다는 점에서 밀본이나 혜통의 경우와 유사해 보인다. 아도의 경우 자신과 관련이 없는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점은 신주편과 유사하다. 하지만 타인의 요청이 없었다는 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법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신주편과 차이가 있다. 반면 목호자의 경우는 타인의 요청으로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신주편 세 이야기와 유사하다. 목호자가 왕녀의 병을 고칠 때 향을 태우며 ‘표서(表誓)’한 것을 불법에 의거한 것으로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 목호자가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은 신주편에 속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신주

편에 속하지 않은 것은 흥법이라는 편목의 성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흥법편은 “三國의 佛法傳來 및 興法の 事實”²³⁾이며, “삼국에 불교가 전래되어 공인되는 과정 및 불교의 興起”²⁴⁾에 대한 기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런데 목호자는 신라에 불교를 전한 최초의 인물이다. 『삼국사기』 법흥왕 15년 기록에 따르면 19대 눌지왕 때 고구려로부터 승려인 목호자가 신라에 왔다고 한다. 목호자가 공주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은 신주편 세 이야기와 유사하지만 목호자의 행적 중에서 가장 의의가 큰 것은 신라에 불교를 최초로 전했다는 사실이다. 목호자가 공주의 병을 치료한 내용이 신주편에 속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도기라’조는 신라에 불교를 최초로 전한 인물이 목호자임에도 21대 비처왕 때 온 아도를 신라에 불교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목호자가 불교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에 비해 아도는 왕녀의 병을 고친 후 왕에게 불교를 알리는 것을 허락받고 적극적으로 불교를 알렸기 때문일 것이다. 목호자나 아도는 승려로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신주편 이야기와 유사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적 중에 불교를 신라에 알리는데 공헌했다는 점이 더 의의가 있어서 흥법편 ‘아도기라’²⁵⁾조로 소개된 것으로 보인다.

23) 金煥泰, 앞의 논문, 14쪽.

24) 金杜珍, 앞의 논문, 19~20쪽.

25) ‘아도기라’조에서는 『삼국사기』(新羅本紀 第四 法興王 15년) 언급된 아도의 출현 기록(제21대 비처왕 때)과 「아도본비」에 언급된 아도의 출현 기록(제13대 미추왕 때)의 차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아도를 비처왕 때 온 것으로 보면 아도가 고구려에서 100년 넘게 있다 온 것(『삼국사기』에 따르면 아도는 소수림왕 4년(374년)에 고구려에 왔음)이 되고, 미추왕 때 온 것으로 보면 고구려보다 100년 앞서 신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이 된다. ‘아도기라’조에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호자와 아도가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며, 두 기록의 차이가 착오나 누락의 결과일 가능성도 큼을 추정하고 있다.

답상편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²⁶⁾을 찾아볼 수 있지만 승려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은 ‘남백월이성노힐부득달달박박’조에서 뿐이다. 한밤중 노힐부득에게 길 잃은 여자가 찾아오자 노힐부득은 그녀를 자고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녀의 해산과 목욕까지 도와준다. 노힐부득이 여인을 도와준 것은 여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며,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려움이었다. 그런데 노힐부득이 여인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한 것은 없어 보인다. 노힐부득이 한 것은 여인에게 잘 곳을 제공했을 뿐이며, 여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여인이 처한 어려움은 노힐부득에게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채워주는 것, 해산, 목욕 등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다. 다만 노힐부득이 승려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보다 마음먹기가 힘들었을 수는 있다. 노힐부득의 입장에서 보면 여인이 처한 어려움은 사실 노힐부득의 어려움일 수 있다. 한밤중에 여인을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인을 들인다면 계율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노힐부득은 이 상황에서 계율에만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실천함으로써 성불할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여인이 노힐부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노힐부득이 여인에게 도움을 받은 셈이다.

노힐부득이 여인의 요청으로 여인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었다는 점

26) 답상편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은 승려가 아닌 일반인들이 부처에게 발원하여 극복하는 내용들이다. ‘삼소관음중생사’조에서 최은함은 아이가 없어 관음보살에게 기도하여 아이를 가졌고, ‘백률사’조에서 부레랑의 부모도 불상 앞에서 기도하여 狢賊에게 잡혀간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분황사천수대비맹아득안’조 역시 천수관음에게 아이가 노래를 지어 빌어 눈을 뜰 수 있었다. 반면 ‘삼소관음중생사’조에서 승려 성태는 어려움에 처해 관음보살상에 고하고 떠나려 했는데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 성태 자신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행위가 없어 이 내용은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에서 신주편 세 이야기와 유사성은 있다. 다만 노힐부득이 여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한 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신주편 세 이야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는 노힐부득이 여인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준 일을 달리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여인의 어려움은 노힐부득이 부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는지, 계율에만 집착해서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지 보기 위한 시험으로써의 성격이 강하다. 여인이 먼저 찾아갔던 달달박박이 계율에 집착해서 노힐부득보다 늦게 성불하였던 것을 보면 분명해진다. 그런데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이야기는 탐상편에 존재한다. 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려던 것이 “두 인물의 성불에서 기인하여 절과 佛像이 생기게 된 내력”²⁷⁾에 있기 때문이다.

신주편이 세 이야기에다 중심인물과 관련하여 사찰이 생기게 되었다는 언급이 있다. 신주편 세 이야기에서 사찰이 생기게 되었다는 내용을 공통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찰이 생기게 된 연유가 각기 다르기 때문²⁸⁾이다. 신주편 세 이야기가 사찰이 생기게 된 내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세 이야기는 탐상편에 속해야 한다. 신주편 세 이야기가 탐상편이 아닌 신주편으로 묶였다는 것은 세 이야기에서 언급된 사찰이 생기게 된 내용은 신주편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달리 말하면 ‘남백월이성노힐부득달달박박’조에서 발견

27) 朴仁熙, 『『三國遺事』 道伴說話의 확장과 변모』, 『語文研究』 142,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9, 137쪽.

28) 혜통의 경우만이 어려움을 극복시켜 준 것을 계기로 신충봉성사가 생기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김양도가 병이 나온 후 불교를 믿고 홍륜사에 불상을 만들었기에 혜통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김양도의 병은 일본이 고치려고 오던 중 일본의 명성에 귀신들이 몰려가서 나왔다. 일본이 김양도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혜통의 경우와 다르다고 봐야 한다. 명랑의 경우는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 보시를 받아 온 황금으로 금광사를 세웠다. 명랑이 사찰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비법을 전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주편 세 이야기에 사찰이 생기게 된 내용은 있지만 세 이야기의 공통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는 성불과 사찰 창건을 위한 과정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신주편과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의해편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보양이목’조에는 보양이 고려 태조를 도와 산적을 물리친 내용이 있다. 태조가 보양에게 산적들을 칠 방법을 묻자 보양은 태조에게 북쪽을 치라고 하였다. 태조는 보양을 말을 따라 북쪽을 공격해서 산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명랑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명랑은 당 나라 군사를 물리칠 때 전술이 아닌 불법에 의거한 문두루법을 사용했지만 보양의 경우 지세를 이용한 전술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즉 신주편 세 이야기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다.

‘현유가해화엄’조에는 경덕왕 때 가뭄이 들자 대현을 불러들인 내용이 있다. 경덕왕은 가뭄이 심해서 대현을 불러 『금강명경』을 강하여 비를 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금강명경』을 강론하게 했다는 점에서 신주편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유사하다. 다만 대현이 가뭄을 극복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현이 한 일은 대궐의 우물에 물이 말라 재(齋)에 정수를 늦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감리(監吏)의 말을 듣고 강론할 때 향로를 받들어서 대궐의 우물에 물이 솟게 했다는 것이다. 대현이 우물을 솟아나게 한 것을 어려움을 극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자신과 상관이 없는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었고, 우물이 솟게 하기 위해 강론할 때를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감리는 대현에게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주편 세 이야기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의해편에서 신주편 세 이야기와 유사한 경우는 ‘원광서학’조에서 발견된다. 왕이 병이 나서 의원이 치료해도 차도가 없자 원광을 청하여 병을 고쳤다고 한다. 원광은 매일 두 시간씩 깊은 법을 말하니 왕이 크게 신봉하였고 오래지 않아 왕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원광이 병을 고친 것은 밀본이나 혜통이 병을 고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내용은 ‘원광서학’조에 실렸다.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자신과 상관이 없는 어려움을 불법으로 극복시켰다는 점에서 신주편에 속할 만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신주편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앞서 살핀 흥법편 ‘아도기라’조의 목호자의 경우와 같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광서학’조는 원광에 대한 『당고승전』의 기록, 원광의 제자 원안의 기록²⁹⁾, 『수이전』의 기록, 『삼국사기』 열전의 기록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당고승전』 외의 기록들은 『당고승전』에 없는 내용들이 많다. 『당고승전』에 없는 내용들은 원광의 행적을 보다 완전하게 채워준다. 그리고 기록들 간에 중첩되는 내용에서 발견되는 기록상의 차이나 기록상의 문제³⁰⁾를 언급함으로써 원광의 행적을 바로잡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원광서학’조는 원광의 전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왕의 병을 고친 일이 신주편에 부합하더라도 따로 떼어내서 신주편에 넣는다면 원광의 행적 일부가 누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광서학’조에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다른 승전에 전하거나 독자의 전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곳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해편을 구성’³¹⁾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원광과 관련한 행적을 신주편에 넣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감통편에서는 ‘선도성모수회불사’, ‘경흥우성’, ‘월명사도술가’, ‘용천사혜성가진평왕대’, ‘정수사구빙녀’조에서 승려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다섯 이야기에 등장하는 내용은 신주편과 비교할 때 각기 차이가 모두 발견된다. ‘선도성모수회불사’조의 경우 지혜라는 비구니가 불전을 수리하는데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어느 날

29) 원광이 병을 고친 것은 원안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0) 원광이 입적한 곳이 황룡사인지 황룡사인지, 원광이 박 씨인지 설 씨인지, 중국에 가서 출가했는지 출가한 후 중국에 갔는지가 당전과 향전의 차이이다. 보양법사의 사적과 뒤섞인 점은 기록상의 문제이다.

31) 金杜珍, 앞의 논문, 22쪽.

지혜의 꿈에 신모가 나타나서 금이 묻힌 곳을 알려줘 지혜는 불전을 수리할 수 있었다. 신주편 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준 데 비해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홍우성’조도 마찬가지이다. 경홍 법사가 병이 들어 한 달이 되도록 낫지 않았는데 한 비구니가 찾아와 웃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며 우스운 춤을 추자 경홍이 웃다가 병이 나았다고 한다. 경홍의 입장에서 보면 지혜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이다. 반면 여승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준 이야기이다. 신주편과 비교하면 경홍의 요청이 없었는데 여승이 먼저 치료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경홍의 병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심인성 병일 경우 웃음도 치료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움과 상관이 있는 방법으로 고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신주편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월명사도술가’조의 경우 이일병현의 변괴가 나자 월명사가 <도술가>를 불러 변괴가 사라지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월명사가 <도술가>를 부르게 된 것은 인연 있는 승려를 청하여 산화공덕을 지으면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일관의 말 때문이다. 그런데 왕이 월명사를 지목하여 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주편과 차이가 있다. 신주편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승려는 직접 요청을 하고, 그로 인해 승려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나선다. 월명사의 경우는 왕이 인연 있는 승려를 기다리다가 마침 지나가던 월명사에게 청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신주편이 불법에 의거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에 비해 향가로서 변괴를 물리쳤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용천사혜성가진평왕대’조의 경우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변괴가 일어나자 용천사가 <혜성가>를 불러 변괴가 사라지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변괴가 나자 용천사는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나섰으며,

향가를 불러 변괴가 사라지게 하고 일본 군사를 돌아가도록 했다고 한다. 요청이 없었다는 점과 향가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신주편과 차이가 있다. ‘정수사구빙녀’조는 겨울에 얼어 죽게 된 여인을 정수가 자신의 체온으로 살린 내용이다. 정수 역시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여인의 어려움을 극복시켜 주었다. 정수는 얼어 죽게 된 여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체온을 이용했으니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이용한 셈이다.

『삼국유사』 각 편목에서 승려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다.³²⁾ 신주편 세 이야기는 ① 승려인 중심인물이 ② 타인의 요청으로, ③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려움을, ④ 불법(佛法)을 사용하여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 신주편을 제외한 다른 편목에서 승려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 중에서 신주편에 부합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는 흥법편 ‘아도기라’조에서 목호자가 왕녀의 병을 고친 경우와 의해편 ‘원광서학’조에서 원광이 왕의 병을 고친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목호자와 원광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이 신주편에 부합한다고 해서 신주편으로 떼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도기라’조에서 목호자가 왕녀의 병을 고친 내용이 존재할 때, ‘원광서학’조는 원광이 왕의 병을 고친 내용이 존재할 때 각 편목의 영향 아래 조목이 제대로 된 의미를 구현하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른 이야기들을 신주편 세 이야기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2) 피은편과 효선편의 경우 신주편과 비교할 내용이 없다. 피은편의 경우 중심인물이 모두 승려이나 승려가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극복시켜 준 내용이라 보기는 어렵다. 효선의 경우는 중심인물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있으나 승려가 어려움을 극복시켜 준 내용으로 볼 만한 내용은 없다.

인물	요청		어려움의 종류	佛法 사용	어려움 극복
	유무	요청자			
표훈	○	경덕왕	자식이 없음	×	○
노힐부득	○	여인	잘 곳, 해산 등	×	○
보양	○	고려 태조	산적 퇴치	×	○
대현	○	경덕왕	가뭄	○	△
지혜	×	×	공사 비용	×	○
경홍	×	×	자신의 병	×	○
비구니	×	×	경홍의 병	×	○
월명	△	경덕왕	이일병현	×	○
응천	×	×	해성 등장	×	○
정수	×	×	동사의 위험	×	○

정리한 결과를 보면 가장 두드러진 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법을 사용했는지 여부이다. 신주편 세 이야기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약사경』, 주문, 문두루법을 사용하여 모두 불법에 의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신주편이 아닌 다른 편목에서는 불법을 사용한 경우가 대현밖에 없었는데 가뭄이 해결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아 어려움을 극복하였다고 보기 힘들었다. 다른 편목에서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신주편에서는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야기만을 보여준 셈이다. 그렇다면 『삼국유사』 신주편은 불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편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편목 이야기들과의 비교를 통해 신주편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편목인지 분명해졌다. 그런데 신주편이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편목이라면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왜 세 편밖에 소개하지 않았냐는 점

이다. 신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³³⁾로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가 세 경우밖에 없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신주편에서 세 이야기만을 다룬 이유가 밝혀야만 신주편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다.

IV. 불교에서 신주, 불법

불교에서 불법은 삼보 중의 하나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는 『삼국유사』에서 더 많이 소개해야 할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불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불교를 널리 알리는 데도 유용하다. 이를 통해서 불교가 이 땅에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더 많이 소개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신주편은 『삼국유사』 여러 편목 중에서 가장 적은 세 편만을 소개하고 있다. 세 이야기로는 불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부족해 보인다. 신주편이 세 이야기만으로 이루어진 이유를 신주편에서 불법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본최사’조 후반부에 김유신의 친척인 수천의 병을 고친 거사 이야기가 있다. 거사는 김유신의 부탁으로 수천의 병을 고치기 위해 왔었다. 수천의 친구인 인혜사가 거사를 보더니 업신여기며 병을 고칠 수 있겠냐고 하였다. 그러더니 자신의 신통력을 보라며 향로를 받들어 향

33) 『삼국유사』의 다른 편목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이 주로 신라와 관련된 내용들이며, 특히 신주편 세 이야기는 모두 신라에서 있었던 일이었기에 이렇게 한정된 것이다.

을 피우고 주문을 외워 오색구름이 머리 위를 둘러싸며 천화(天花)가 흩어져 떨어지도록 하였다. 거사는 자신에게도 변변치 못한 기술이 있으니 자신 앞에 서 달라고 인혜에게 부탁하고는 자신의 손가락을 한번 튕겨 인혜가 공중에 한 길이나 솟구치게 한 후 거꾸로 땅에 박히도록 만들었다. 사람들이 인혜를 잡아 빼려고 해도 꿈작하지 않아 다음날 김유신이 거사에게 부탁하여 인혜를 꺼낼 수 있었으며, 인혜는 이 일을 겪은 후로 다시는 재주를 팔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혜가 향로를 받들어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우는 것은 밀본, 혜통, 명량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던 것과 다르지 않다. 신주편 세 인물과 마찬가지로 인혜도 불법의 능력을 알고 사용할 줄 알았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인혜의 태도를 보면 인혜는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평가하고 무시하였으며,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뽐내기를 좋아했었다. 거사가 인혜를 땅 속에 처박히게 만든 것을 보면 거사는 인혜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사는 겸손했고 인혜는 무례했다. 처사가 인혜에게 벌을 준 것은 인혜의 태도를 꾸짖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 신주편이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편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거사가 인혜를 벌 준 것은 인혜의 태도를 꾸짖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인혜는 그 일을 겪은 후 다시는 재주를 팔려고 하지 않았다³⁴⁾고 한다. 이를 보면 인혜는 자신의 재주를 대가를 받으며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사가 인혜를 벌 준 것은 인혜가 불법의 능력을 대가를 받아가며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가를 받으며 불법을 사용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려던 부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며, 불법의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거사는 인혜를 벌줌으로써 불법은 대가를 받으며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34) 『三國遺事』, 神呪第六, 密本摧邪, “因惠不復賣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혜통항룡’조에서도 불법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내용이 있다. 혜통은 신문왕의 병을 고쳐준 후 신문왕에게 아뢰다. 왕이 전생에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주어 그 사람이 환생할 때마다 보복을 받으니 절을 세워 그 사람의 명복을 빌어 원한을 풀라는 것이었다. 왕이 혜통의 말을 따라 절을 짓자, 공중에서 왕이 절을 지어 주어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났으니 원한이 풀렸다는 소리가 났다고 한다. 만약 혜통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신문왕은 다시 병을 앓았을 것이다. 신문왕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혜통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신문왕이 혜통의 말을 따른 것은 혜통이 낫지 않던 병을 불법으로 고치는 것을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신문왕은 불법의 능력을 몸소 경험했기에 혜통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혜통의 말을 따르자 악업이 풀리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신문왕은 불법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또한 신문왕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불법을 거스를 수는 없겠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이다.

혜통이 신문왕의 병을 불법을 사용하여 고쳤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불법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불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왕이 직접 불법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왕이 불법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이로 인한 과급력을 클 수밖에 없다. 혜통이 신문왕의 병을 고쳤던 것은 불법의 능력을 보여주기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을 따르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 불법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불법은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려는 것이다. 혜통은 신문왕의 병을 고쳐 줌으로써 불법의 능력이 불법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명량신인’조에서도 관련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명량은 당 나라에서 도를 배우고 돌아오다가 용의 청에 의해 용궁에 들어가 비법³⁵⁾을 전한

적이 있다. 이때 명량은 황금 천 냥을 보시 받아 돌아와서 그 황금으로 탐과 불상을 장식했으며, 자신의 집까지 내놓아 절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 내용은 명량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었다는 내용은 아니다. 이 내용이 보여주는 것은 명량이 비법을 전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데 있다. 명량은 용의 요청에 조건 없이 응했으며, 당 나라에서 배운 것을 대가 없이 전했다. 보시로 받은 황금 천 냥을 탐과 불상을 장식하는데 모두 사용했으며, 더 나아가 명량은 탐과 불상을 안치하기 위해 자신의 집까지도 내놓았었다. 당 나라에서 배운 도를 사용하였다면 탐과 불상을 안치하는데 자신의 집까지 내놓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명량은 도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희사하였다. 이를 보면 명량은 비법을 전하거나 사용할 때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어떤 일을 위해 경비를 마련하려고 비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즉 명량은 불법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고, 불법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신주편 세 이야기에서 중심인물들은 불법이 가진 능력을 알면서도 요청이 있을 때만 사용하였음을 보았다. 그리고 중심인물들의 또 다른 행적을 통해 이들이 불법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중심인물들은 불법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불법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불법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고, 불법의 사용에 대가를 바라거나 대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심인물들이 불법에 대해 이런 태도를 보여준 것은 불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신주편 중심인물들은 불법을 사용하는데 신중했던 것이다.

35) 秘法은 밀교에서 사용하는 수행법의 하나로 부처나 보살의 가호를 구하여 기도하는 법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3밀 수행으로 입으로는 진언을 읊고, 손으로는 印을 쥐고, 마음으로는 부처나 보살을 관상하는 법을 말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신주편에서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는 불법의 능력을 알리는데 있지 않을 것이다. 신주편에서 불법의 능력을 보여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불법을 따르기보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불법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불법이 사람들에게 부처의 가르침의 정수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치병과 제액(除厄)을 위한 도구로써 전략하게 됨을 의미한다. 부처도 애초에 제자들이 주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으므로 불법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식되는 것을 원했을 리 없다. 부처는 당시 유행하던 주술에 대해 “주술 활동이 그릇된 생활수단으로 이용되고(邪命自活), 나아가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修遮道法)”³⁶⁾이라고 하여 일체의 주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주술을 허용하면서 ‘護身’과 ‘不以活命’의 두 가지 조건”³⁷⁾을 들었고, 처음에는 당시의 주술을 받아들이다가 ‘새로운 주술을 마련하고 이를 paritta(防護呪)’³⁸⁾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불방 불교에서는 “진언의 사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단의 기본철학적인 체계내에서 재정립하고, 기존의 진언의 틀을 응용하여 그 자체의 明呪(vidya)를 마련”³⁹⁾했으며, “이들 vidya들은 경전과 같이 취급되고, 경전의 하나로서 사용되었다”⁴⁰⁾고 한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부처는 주술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다. 주술이 불교에 점차 흡수되어 체계화되고 후대에는 경전으로까지 사용되었지만 주술에 대한 부처의 기본 입장은 불교에서 유지

36) 金武生, 「초기불교에 있어서 진언 수행의 수용과 전개」, 『佛敎學報』 38, 東國大 佛敎文化研究所, 2001, 97쪽.

37) 金武生, 위의 논문, 100쪽.

38) 金武生, 위의 논문, 101쪽.

39) 金武生, 위의 논문, 109쪽.

40) 金武生, 위의 논문, 109쪽.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불법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만 인식한다면 부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주술이 불교에서 수용되는 과정을 일연이 알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연은 불법의 목적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신주편에서 세 편의 이야기밖에 소개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일연에게 불법은 『삼국유사』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⁴¹⁾이자,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대상이다. 그리고 불법이 부처의 가르침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 줄 필요도 있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만 불법을 인식한다면 부처의 뜻에 거슬리는 것이 된다. 신주편은 많은 이야기보다 사람들에게 불법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도 사람들에게 불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경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주편이 삼보 중의 하나인 불법을 다룬 편목이면서도 세 편의 이야기밖에 다루지 않은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들이 신주편 이야기만으로 불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불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불법에 따르는 삶을 살도록 노력했을 것임은 분명하다. 결국 『삼국유사』 신주편은 삼보 중의 하나인 불법을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면서도, 불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경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세 편의 이

41) 『삼국유사』 기이편을 제외한 다른 편목은 불교와 관련한 편목들이다. 이들 편목에서 다루는 것은 표면적으로만 봐도 ‘홍법-불교의 전래사, 탑상-탑과 사찰, 의해-교학승, 감통-신앙심, 피은-수양태도, 효선-보시’이다. 불교에서 다루어만 할 것 중 부처와 불법에 관한 것만 없다. 부처는 각 편목의 여러 이야기 속에 등장하므로 특별히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을 다루지 않았다면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을 빠뜨린 셈이 된다.

야기로 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밀교승들의 이야기를 선택했다. 이는 밀교승들의 이야기가 일연의 의도에 적합했거나, 실제로도 불법의 능력을 알리는데 밀교승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일연은 밀교승들의 이야기를 통해 불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⁴²⁾으로 보인다.

V. 결론

『삼국유사』 신주편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삼국유사』의 일부로서, 밀교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삼국유사』에서 신주편을 따로 두었다면 신주편을 통해 전하려는 바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삼국유사』 신주편이 무엇을 다루고 있으며, 무엇을 전하려는지 살펴보았다.

신주편 세 이야기를 살펴본 결과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다. 세 이야기의 공통점은 ① 승려인 중심인물이 ② 타인의 요청으로, ③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어려움을, ④ 불법(佛法)을 사용하여 극복하였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신주편 세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다른 편목의 이야기들과 비교해 보니 신주편 세 이야기들이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편목의 이야기들과 구별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42) 정병삼은 일연이 밀교를 신라불교의 중요한 줄기로 파악했기에 신주편을 설정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밀교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많이 소개되었어야 한다. 교학승들의 이야기가 중심인 의해편이 14편인데 비하면 신주편은 매우 적은 양이다. 게다가 5편이 소개된 효선편보다도 적다. 세 이야기만으로 밀교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신주편은 밀교승들의 이야기이지만 밀교가 초점이 아니다. 신주편에서 초점은 불법이며, 사람들에게 불법을 알리는데 밀교승들의 행적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밀교승들의 이야기로만 묶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주편이 다루고 있는 것을 불법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하며, 신주편 세 이야기는 불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음을 의미한다.

삼보 중 하나인 불법은 『삼국유사』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임은 분명하다. 다만 신주편에서 보여준 불법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불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사람들이 불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는 것을 일연이 원했을 리는 없다. 이런 점에서 신주편 세 이야기가 불법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도 함께 보여주는 이야기임을 살펴보았다.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불법에 대한 바른 태도는 불법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법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 아니라 불법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며, 불법의 사용에 대가를 바라거나 대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신주편의 이야기가 다른 편목의 이야기 수에 비해 적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불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경계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함을 보았다.

『삼국유사』의 찬자였던 일연에게 불법은 『삼국유사』에서 다루어야 대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의 심오함을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삼국유사』 신주편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일연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편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은 2012년 1월 31일에 투고 되어,
2012년 2월 15일부터 3월 9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2년 3월 2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三國遺事』

『灌頂經』

『金光明經』

金杜珍, 「三國遺事の體制와 내용」, 『한국학논총』 23,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0.

金武生, 「초기불교에 있어서 진언 수행의 수용과 전개」, 『佛敎學報』 38, 東國大學校 佛敎文化研究所, 2001.

金煥泰, 「三國遺事の體裁와 그 性格」, 『論文集』 13, 東國大學校, 1974.

朴仁熙, 「『三國遺事』 道件說話의 확장과 변모」, 『語文研究』 142, 韓國語文敎育研究會, 2009.

朴泰華, 「韓國佛敎의 密敎經典 傳來攷」, 『韓國佛敎學』 1, 韓國佛敎學會, 1975.

尹柱弼, 「《三國遺事》의 체재와 주제 - <感通>편의 체재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韓國學論集』 15,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89.

이도흠, 「《三國遺事》의 구조 분석과 의미 해석」, 『韓國學論集』 26,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1995.

李妍淑, 「一然의 『三國遺事』 편찬 의도에 관한 一考察 - 神呪篇을 중심으로」, 『東義語文論集』 8,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이의태, 「설화로 본 삼국유사의 체제와 주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0.

정병삼, 「《삼국유사》 神呪편과 感通편의 이해」,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32,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2011.

하정룡, 「《三國遺事》 神呪第六 惠通降龍條와 新羅密敎」, 『회당학보』 7, 회당학회, 2007.

洪潤植, 「三國遺事와 密教」, 『東國史學』 14, 東國史學會, 1980.

고려대장경 연구소 홈페이지(www.sutra.re.kr), 경건검색/지식베이스
용어사전.

Abstract

A Study on *Sinju-pyeon* in *Samgukyusa*

Park, In-Hee

Studies on *Samgukyusa* have been progressed largely in the three fields of study, history, literature and Buddhism. Up to date, there have been hundreds of the research papers. However, there are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studies on *Sinju-pyeon* in *Samgukyus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what *Sinju-pyeon* in *Samgukyusa* treats and tries to convey.

There are three stories in *Sinju-pyeon* in *Samgukyusa*. A review of the three stories reveals the following things in common. They are stories that their main characters who are (1)monks solve (2)other people's difficulties (3)from other people's request (4)by the law of Buddha. The other people's difficulties were knotty. Because they remained unresolved for long time or suddenly happened to someone. Nevertheless, they were solved by the law of Buddha. In the three stories in *Sinju-pyeon*, the law of Buddha conquers difficulties, which makes them especially distinguished from other stories.

Although *Samgukyusa* might be regarded as a history book, it might be seen as a book collecting stories about Buddhism, too. By the way, the law of Buddha is Buddha's teaching and one of the

Three Treasures in Buddhism. In *Samgukyusa*, there are various of stories related to Buddhism. It seems that the law of Buddha should have been treated more importantly in *Samgukyusa*. Nevertheless, there are only the three stories. It can be seen that the reason is a special character of Buddhism. The key point of Buddhism is that people find enlightenment through cultivating their mind for themselves and renounce their earthly desires. In this process, the law of Buddha should help them to renounce their earthly desires. It must not be used as a means for solving individual difficulties. This is the reason that there are only the three stories in *Sinju-pyeon* in *Samgukyusa* although the law of Buddha is treated in it.

Sinju-pyeon in *Samgukyusa* treats the law of Buddha and shows that there is no difficulties that cannot be solved by the law of Buddha. Nevertheless, there are only the three stories in it. It can be understood that the reason is in order to show that the law of Buddha should not be used thoughtlessly for solving individuals' problems.

Key Words : Sinju, Samgukyusa, the law of Buddha,
Milbon-choesa, Hyetong-hangryong,
Myeongrang-sinin